

2. 98년 2/4분기 국내총생산 발표

- (특징)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경제의 급락을 막고 있던 수출까지 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야기
 - 장래 경제에 대한 불투명성 증대와 금융경색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으로 제조업 부문, 특히 경공업 부문의 생산 부진이 가속화
 - 소비 및 투자 등 수요 부문의 급격한 위축은 자칫 디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음
- (전망) 하반기 중에도 대외 여건의 악화와 경제 불확실성 등에 의한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 지속, 구조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,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행될 경우 99년 2/4분기 이후 경기 회복 가능

□ 98년 2/4분기 성장 지표의 특징

- (2/4분기 경제 성장률 -6.6%) 내수 침체 가속화와 수출 증가 둔화세에 기인
 - 98년 2/4분기 경제 성장률은 80년 4/4분기의 -7.8%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-6.6%를 기록. 상반기 전체로는 -5.3%를 기록하여 반기별 경제 성장률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
 - 1/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금까지 경제의 급락을 떠받치고 있던 수출까지 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의 대폭적인 하락을 야기함

< 98년도 2/4분기 부문별 경제성장률 >

	1997				1998		
	상반기	3/4	4/4	연간	1/4	2/4	상반기
GDP성장률	6.2	6.1	3.9	5.5	-3.8	-6.6	-5.3
최종소비지출	4.7	5.1	-0.2	3.5	-9.7	-12.2	-11.0
민간소비	4.5	4.8	-1.0	3.1	-10.8	-13.1	-11.9
정부소비	4.0	7.2	4.0	5.7	-4.3	-8.0	-6.2
총고정자본형성	0.3	-3.7	-9.8	-3.5	-23.0	-29.8	-26.6
건설투자	1.3	3.8	3.7	2.7	-7.7	-13.2	-10.7
설비투자	-1.0	-12.7	-28.2	-11.3	-40.7	-52.4	-46.7
재화와 용역의 수출	20.4	33.2	20.8	23.6	26.4	16.1	20.9
재화와 용역의 수입	7.7	4.7	-4.0	3.8	-25.3	-22.2	-23.7

- (생산 활동 위축 가속화)

- 2/4분기 중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6.0% 감소(1/4분기 3.9% 감소)
- 특히,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담당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 감소가 10.0%(1/4분기 6.4% 감소)에 달함
- 제조업 중 경공업 부문은 14.3%의 감소세를 나타내 심각한 소비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
- 1/4분기 중 9조 7,541억 원 감소하였던 재고는 2/4분기 들어서도 7조 4,603억 원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감
- 이러한 재고의 감소세는 민간소비 등 총수요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장래 매출에 대한 불투명성 증대와 금융 경색에 따른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생산 활동이 더욱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

- (수요 위축에 의한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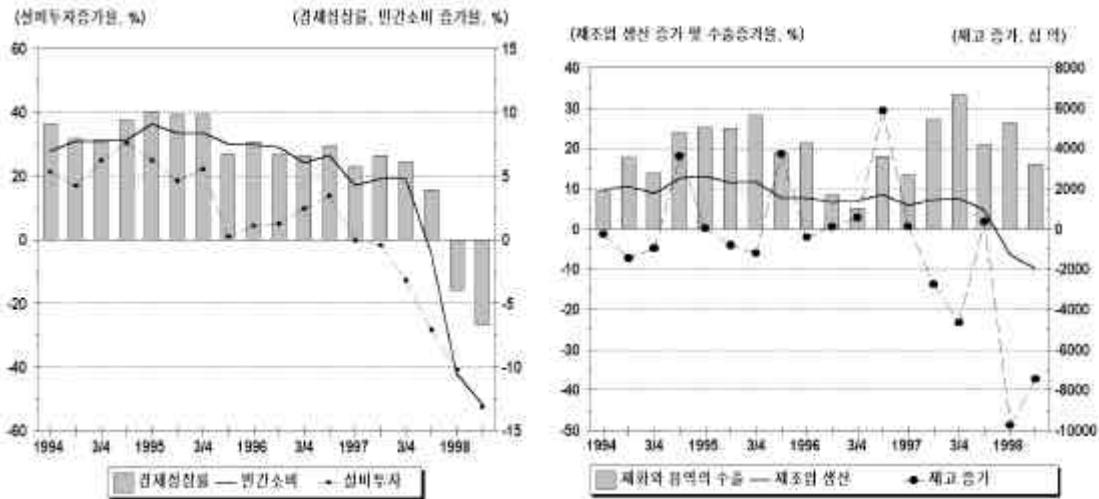
- 그동안 경기후행적 성격을 띠면서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소비는 최근에는 경기 하락을 선도하고 있음
- 2/4분기 중 가계 소비는 13.1% 감소하였으며 정부 소비도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따라 8.0% 감소
- 올 1/4분기 중 도시가계 소득은 2.8% 줄어든 반면 소비는 8.8%나 감소하는 등 가계소비 감소가 소득 감소분보다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각각 52.4%와 13.2%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
- 이러한 과소 수요 현상은 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경제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
- 생산 감소보다 수요가 큰 폭으로 위축됨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 위축 및 기업 수지 악화를 야기하여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임

- (수출 증가율의 둔화)

-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2/4분기에 그나마 16.1% 증가하여 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막고 있지만 1/4분기의 26.4% 증가와 비교할 때 그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

- 러시아 경제 파탄과 위안화 평가 절하 움직임 등 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출 증가세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

< 주요 성장률 변수 추이 >



□ 향후 전망

- 하반기 중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보다 더욱 떨어진 -6.7%, 연간으로는 -6.0%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
 - 러시아 경제 파탄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그동안 경제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있던 수출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어 상반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
 -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및 투자도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임
 - 향후의 경기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도 지난 4월 이후 3%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내년 1/4분기까지는 경기가 계속 침체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다만 하반기중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과 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, 내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음

(이 보 성 bslee@hri.co.kr ☎724-4035)